

포항보호관찰소

○ 매체 : 포인트경제(2026. 7. 4.)

○ 제목 : 기습 폭우·태풍 선제 대응...포항보호관찰소, '재난복구 특별대응팀' 전격 가동

기습 폭우·태풍 선제 대응...포항보호관찰소, '재난복구 특별대응팀' 전격 가동

기후변화 따른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및 신속 복구 지원 체계 마련
지자체·경찰·농협 등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시민 신청도 가능



[포인트경제]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해안가 침수 등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법당국과 지역 유관기관들이 손을 맞잡았다.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김창수)는 여름철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피해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구호·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복구 특별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비정형화되고 강도가 세지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재난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재난 현장 적재적소에 즉각 투입함으로써, 공익적 인력 자원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포항보호관찰소는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포항시청 및 각 구청, 울릉군청 등 지자체는 물론 포항북부·남부경찰서, 포항농협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 체계를 가동한다.

특별대응팀은 이들 기관의 요청이나 자체 현장 발굴을 통해 폭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취약 시설물 사전 보강 등 '재난 예방 활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한다.

만약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침수·태풍 피해를 입은 시설물 철거 및 농작물 복구 등 일손이 시급한 현장에 재난 대응 사회봉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집행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소통 창구도 열려 있다. 관내 주민 중 재난 피해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피해 복구 도움이 필요한 개인·단체는 누구나 포항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김창수 포항보호관찰소장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고 촘촘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재난 취약 지역과 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갑작스러운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사회봉사자를 투입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50만 포항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